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3>



붓다를 공경하는 방법

불자들은 세 가지 보배, 즉 불보, 법보, 승보에 귀의한다. 오늘은 귀의의 대상이 되는 붓다와 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고타마 시타라가 정각을 성취하여 붓다가 되었다. 우리는 정각의 내용을 법이라고 한다. 선후 관계에서 보면 법이 먼저 실재하고 있었고 이 법을 붓다가 증득한 것이다. 붓다가 법을 깨달은 이상 법과 붓다는 서로 다른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중생에게 있어서 붓다라는 인격은 무형의 법보다 더 쉽게 접근 가능하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난해한 법을 붓다라는 인격체를 통하여 우리 중생은 엿볼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중생에게 붓다가 법보다 먼저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붓다에게 사자(四者)로 이루어진 육신을 보는데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자신이 가르쳐 준 법을 보아야 할 것임을 훈계하고 있다. 붓다는 자신의 몸을 지칭하며 "이 썩어 없어질 육체를 보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씀을 남긴다. "법(法)을 보는 것이 여래(如來)를 보는 것이고 여래를 보는 것이 법을 보는 것이다." 붓다의 육체조차도 만들어진 유위법(有爲法)으로 반드시 무상(無常)의 법칙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무상한 것에 의존하지 말고 정법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중심으로 붓다를 공경하는 길은 붓다의 가르침(법)을 실천해야 한다고 붓다는 가르치고 있다. 마지막 여로에서 크게 중병을 앓은 붓다를 목격한 제자 아난다는 붓다의 건강을 걱정하며 한편 스승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슬픔이 밀려 왔다. 붓다는 슬픔에 잠긴 아난다에게 80이라는 고령의 나이를 먹은 당신의 육신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난다! 나는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었고 나의 인생 여정은 이제 막을 내리려 한다. 나는 이제 팔십 세가 되

었다. 비유하면, 낡은 수레가 여기저기 수선을 받아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것과 같이 나의 몸도 그러하다." 붓다는 당신의 몸을 낡은 수레에 비유하며 붓다의 육신도 결국 소멸될 것이니 의존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증득한 정법은 영원히 상주하는 것이다. 영원한 정법을 언설로 설명해 놓은 붓다의 가르침은 그의 법신(法身)이 되어 오늘날까지 우리 중생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붓다를 공경하는 길은 붓다의 가르침(법)을 실천해야 한다고 붓다는 가르치고 있다. 입멸직전 붓다가 사라 썩는 후에 누워 있을 때 천신들이 천상에서 온갖 종류의 꽃과 향료를 가지고 붓다를 공경하였다. 붓다는 이러한 외형적인 공경의 의식을 거부하고 대신 법을 제대로 수행하라고 훈계하고 있다. 거대한 사찰을 건립하고 화려한 금동 불상을 모시는 불사(佛事)에 당신을 존경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불자 개개인이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내면에 숨어 있는 번뇌의 적을 퇴치하고 붓다처럼 열반에 이르는 것이 진정 붓다의 은혜에 보답하는 정도에 틀림없다.

<동국대 불교학과 전임강사>

허상의 그림자 벗어나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하라



설산 스님

(전국염불만일회 법주)

1분 1초라도 다른 생각 말고 부처님 생각하면 극락



■ 설산 스님

1919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난 설산 스님은 14세에 금강산 건봉사에서 의산 스님을 은사로, 계허 스님을 계사로 득도했다. 건봉사 불교전문강원을 졸업하고 상원사 청량선원에서 한암 스님을 모시고 참선수도, 10하안거 성안, 혜화전문학교 불교학과 졸업 후 한때 교육사업과 연극운동에 앞장서기도 했으나 65년 청담 스님의 법상좌로 들어가 '설산(雪山)'이란 법호를 받았다. 현재 삼각산 정토사에 주석하고 있으며 배달문화선양회장과 설산장학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회고록 <후경없는 조선 역사책>과 사찰안내서 <명산고찰따라>, 청담 스님 탄생 100주년 기념집 <지옥을 불태워 버려라> 등이 있다.

"서울에 살고 있는 1천만 인구 중에 극락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소?"

서울 평창동 삼각산 정토사에 주석하고 계신 설산 스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자 대뜸 스님은 이런 물음을 던지셨다.

"현대의 첨단 과학 문명은 인간에게 풍요를 안겨 주었지만, 정작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허상의 그림자에 속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만든 본질은 보지 못하고 허상의 그림자에 속아 살고 있다 그 소립니다. 불교는 이러한 중생의 아픔을 제거하고 해탈의 세계로 이끌어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극락은 무엇일까요? 허상에 속지 않고 자연 그대로, 순리 그대로 생활하는 것이 부처님 세계에 극락입니다. 그렇다면 극락세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곳에 이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염불입니다. 염불은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수행법입니다."

30여 년 넘게 염불수행에 매진해 온 스님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돈과 명예를 좇으며 하루하루 고통과 번뇌에 시달리는 우리네 삶의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을 것이다.

"하루 24시간,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살고 있는 지 반성해 보십시오. 잘못된 일이 있다면 자기 무를이라도 한 번 꼬집어 주십시오. '아프다' 그 느끼는 그 순간 잘못을 바꾸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고쳐나갈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자기를 잃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심명왕생(十名往生)'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10번만 부르면 극락에 간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이 말의 뜻은 염불하는 방법만은 알고 죽으

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어 스님은 염불의 장점과 공덕을 하나하나 짚어 주셨다.

"일단 염불은 밀천이 안들잖아요?(웃음) 또 염불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나무아미타불' 만 외우면 됩니다. 하지만 염불하면서 '무엇을 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세계에 들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분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같은 시간에 염불해 보세요. 해와 달이 뜨는 것이 변하지 않듯, 몸과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미타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사리불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명호를 외우되 하루나 이를 내지, 혹은 7일간 일심으로 신란하지 않으면 목숨을 마칠 때에 일해 아미타불과 여러 상중(聖衆)들이 나타나 극락국토에 왕생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염불에는 크나큰 공덕이 있습니다." 스님에게는 요즘 한 가지 걱정이 있다. 바로 염불 수행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기 때문이다.

"염불을 하려는 불자들은 많은데 가르침을 배울 만한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염불을 기복신앙으로 여기거나 참선보다 낮은 수행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염불정진은 불자들의 지극한 마음을 밖으로 표출하면서 불심을 더욱 돈독하게 하는 정토신앙의 한 형태입니다."

얼마 전 열반한 청화 스님과 함께 우리나라 염불 수행의 선지식으로 손꼽히는 설산 스님은 어떻게 염불수행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을까?

"14살에 염불왕생극락 발원의 중심도량인 건봉사에 들어가서 사미 생활을 했어요. 그때 강원과 영불방, 잠선방이 따로 있었는데 강원에서 경전을 읽

“욕심 버리고 순리대로

라는 것입니다. 단 1분 1초라도 다른 생각 말고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그 1초가 바로 극락이며, 1초가 다시 1초를 거듭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염불삼매입니다. 여러분들도 염불을 곁으로써 하고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하고 지하철에 앉아 있으면서도 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

다보면 조용한 가운데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마음이 이 소리를 자꾸 쫓아가요. 그게 바로 염불하는 소리였어요. 이후 염불로 불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이후 한국전쟁으로 건봉사가 폐사되자 스님은 이곳에 정토사를 세우고 염불수행에 매진했다. 1974년 1만일 염불수행을 서원한 스님은 매일 새벽 4-5시와 오후 6-7시 하루 두 거르지 않고 염불 일념에 들었다. 2001년 10월 만일염불정진을 회향한 스님은 이듬해 다시 만일염불 일념에 돌입했다. 건봉사에서 250여 명의 재가불자들과 함께 만일염불정진을 발원한 것이다. 평생을 염불수행에 매진하고 대중들에게 이를 널리 펼치겠다는 스님의 마음이 담긴 발원이다.

모

2004학년도 동방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집

1982년에 교계 최초로 설립하여 21세기 불교를 이끌어 갈 주역을 양성하고 있는 20년 전통의 불교 대학에서 정진할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과	수업기간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불교학과	2년	정규00명 통신00명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 이상의 학력자	· 강원사교과
				·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승가과	2년	정규00명	· 입학원서(소정양식)	· 중단간부의
법패과	2년	정규00명	· 반명함판사진 6매	· 추천을 받은 자
불교미술과	2년	정규00명		

■ 각과 편입생 약간생 모집

2. 학교 연혁

- 1982. 10. 18. 한국불교대학교 중립 "불교포교사 전문대학"으로 개교
- 1983. 6. 1. 제1회 입학식(간병규 초대학장 취임)불교학과 개설
- 1984. 9. 1. 본교 교명을 "동방불교대학"으로 개명
- 1985. 2. 20. 제2회 졸업식
- 1985. 11. 11. 중곡동 임시교사에서 성북동 중앙불교대학으로 교사 이전
- 1986. 2. 25. 제3회 졸업식
- 1987. 2. 20. 제4회 졸업식
- 1988. 2. 23. 제5회 졸업식
- 1988. 5. 28. 제3대 이영무 학장 취임
- 1989. 2. 25. 제6회 졸업식
- 1989. 5. 1. 제4대 이재복 학장 취임
- 1990. 2. 24. 제7회 졸업식
- 1990. 3. 1. 법패과 신설 및 기숙사 개설
- 1991. 2. 24. 제8회 졸업식
- 1991. 3. 1. 불미미술과 신설
- 1991. 9. 14. 제5대 정대혁 학장 취임
- 1992. 2. 22. 제9회 졸업식
- 1992. 3. 1. 유아교육과 신설
- 1993. 2. 20. 제10회 졸업식
- 1994. 2. 26. 제11회 졸업식
- 1994. 3. 1. 한의예과 신설
- 1995. 2. 25. 제12회 졸업식
- 1996. 2. 10. 제13회 졸업식
- 1997. 2. 27. 제14회 졸업식
- 1998. 2. 24. 제15회 졸업식
- 1999. 2. 26. 제16회 졸업식
- 2000. 2. 24. 제17회 졸업식
- 2001. 2. 24. 제18회 졸업식
- 2002. 2. 27. 제19회 졸업식
- 2003. 2. 27. 제20회 졸업식

3. 특전

- 졸업생 전원 2급 정포교사 자격증 발급
- 승려인 경우 종단의 대선법계종수
- 법패과 전원 영산재보존회 이수증 수여
- 문화수리기술 기술자 자격취득(국가고시)
- 성적우수자 및 각종 장학금 지급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4년 1월 14일(토) ~ 2004년 2월 18일(수)

5. 전형일

· 2004년 2월 21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6. 전형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공통) 실기(법패과 · 불교미술과)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과학처 : 서울 성북동 292-1 (TEL. 02-745-2030-2, FAX. 02-744-3461)
- HP : www.dongbang.or.kr · E-mail : dongbangdae@hanmail.net
- 태고총총무원 : 서울 은평구 신사동 9-16 (TEL. 02-382-7361-2)
- 각시 · 도교구총무원
- 경서원(조계사원) TEL. 02-733-3345 (136-823 서울 성북구 성북동 292-1)

한국불교대학교 동방불교대학



"얼을 떠나 앉아 있을 때, 언제 어디서고 염불하라"고 당부하는 설산 스님. 스님은 "염불을 지극히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세상 만물이 부처님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대로 생활하는 것이 부처님 세계

스님의 왼쪽 발에는 발톱이 하나 밖에 없다. 발톱이 붙어있어야 할 다른 네 발가락은 스님이 스스로 잘라버렸다. 일제의 학병에 끌려갈 수 없다는 항거의 표시였다. 사람들이 스님의 성치 않은 다리에서 지난 역사의 비애를 읽는 것도 이 때문이다. 60여 년을 절벽이며 살아왔으니, 오른쪽 다리인들 편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제 지팡이와 벽을 의지하지 않고는 걸음을 옮기기 힘들지만 "아직 염불하는데 지장이 없으니 건강하다"는 것이다.

"늙어서 그런지 낮잠도 많이 잤다"고는 하지만 매일 5시에 일어나 염불로 하루를 여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최근에는 스님이 '조선의 아버지'라고 여기는 만해 스님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 "만해 스님에 관한 대부분의 글이 스님의 시에만 초점을 맞

춘 것 같다"며 "나는 스님의 일대기를 쓰고 싶다"는 것이다.

"요즘은 부쩍 옛날 생각이 많이 나오. 만해 스님에 얽힌 이야기들을 쓰느라 더 그렇겠지만 내가 보고 지란 건봉사의 산과 바위의 나무가 자꾸 떠오르는데 그게 그렇게 정겹게 다가올 수가 없어."

만해 스님 일대기를 쓰는 것 외에 시(詩)는 거의 쓰지 않는다는 스님이지만, 건봉사가 생گار 때면 읊조린다는 시 한 수를 들려주었다.

낮달이 걸려 있는 소나무 가지 바위 아래
주리면 열매 따고 풀썰으로 바람 비 가려
웅달샘에 달빛 읊겨 마시면 저 멀리
도솔천 별빛이 진주알처럼 흩어진다



복·징 두드리며 하루 세차례 염불

설산 스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 세 번, 새벽 5시와 오전 11시 10분, 저녁 6시에 각각 20~40분씩 염불 수행에 매진한다. 스님은 염불을 할 때 번뇌와 잡념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복과 징을 이용한다. 전통 염불법에 따라 앉은자리 왼쪽에는 복을 앞에는 징을 놓고 아미타불을 호명한다.

"쇠를 치는 것은 불가에서 지옥문을 여는 것을 상징합니다. 염불을 해서 지옥문을 열겠다는 마음을 다지는 것이지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복을 치는 것은 고통 받는 축생의 육신을 모두 쉬게 하려는 뜻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염불하면 새소리 나면 새소리를 쫓고 바람소리 나면 바람소리를 쫓게 되고 잠도 쉽게 오는데 그럴 막기 위해서 복과 징을 치는 것입니다."

스님은 염불할 때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나미아미타불'을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복과 징을 치는 움직임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과 함께 한다는 마음이 염불의 전부"라는 스님은 서산으로 넘어가는 붉은 해를 관하는 관상염불(觀想念佛)을 한다. <관무량수불경>에 나오는 극락세계 직관방법인 '일상관(日想觀, 서쪽에 지는 해를 바라보며 일념으로 생각하는 방법)'이다. 염불을 시작하고 끝날 때는 머리를 조아려 "아미타부처님 예를 드리오니 높으신 부처님 아미타부처님이 나를 사랑해서서 극락세계 가도록 인도해 주소서"하고 기도를 올린다.

"언제 어디서나 염불한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염불을 지극히 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돌도 개울도 다니는 사람도 모두 부처님으로 보게 됩니다."

연(緣)은 무상(無常)이요, 정(情)은 환멸(幻滅)인데 산에서 사는 사람은 마음이 없어요
-스님의 시 '산거(山居)' 전문

"우리는 항상 부처님의 공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머무는 이 곳이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저는 염불을 하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염불을 통해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곳이 바로 극락이요."

정리=여수영 기자 · 사진=박재환 기자



성전스님의 스님이야기

서봉 스님

겨울은 언제나 햇살을 찾아 걸음을 옮기게 한다. 추위를 뚫고 다가오는 햇살은 따뜻함을 넘어 정경기까지 하다.

छ고 의로울 때 그리고 문득 수행의 자리가 쓸쓸하게 느껴질 때 누군가 햇살처럼 다가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즐거움일까.

사람 사는 것의 큰 보람과 의미는 주변 사람들에 있다고 한다. 주변에 좋은 벗이 있다면 그것은 삶의 보람을 만난 것이고, 좋은 벗이 없다면 그것은 삶의 보람을 만나지 못한 것과 같다. 마치 꽃이 향기가 있음에 벌과 나비가 찾는 것과 같은 의미다. 주변에 좋은 벗이 없다면 내 삶에 향기가 없다는 말이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일이다.

내게는 많은 도반이 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거

특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는 또 대단한 기억의 소유자다. 그가 있으면 우리 자리에 화제가 넘치는 것은 그가 조계종의 모든 야사를 두루 꿰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문중의 계보도 스님들의 일사사를 그는 정말 잘도 기억하고 있다. 그와 내가 똑같이 들은 이야기를 나는 기억하지 못해도 그는 또 무엇이 기억해 내고는 한다. 부처님 재세 시에 그가 있었다면 그는 능히 아난과 같은 역할을 했을 거라는 추측을 날게 한다.

그의 경상도 사투리에 담긴 스님들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정말 재미가 있다. 동시대를 살았어야만 알 수 있을 듯한 이야기를 한참 후배인 그가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언제나 의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를 때로 '서 박사'라고 호칭하기도 한다.

내 도반 중에는 박사라 호칭 되는 스님이 두 분 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서봉 스님이다. 다른 한 스님은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능해 종단 정치와 세속 정치에 탁견을 소유하고 있고, 서봉 스님은



그림·문병성

을 햇살처럼 따뜻하고 정답게 다가오는 도반 하나 가 있다. 서봉스님. 서먹서먹 하고 조용하던 모임 자리도 서봉스님이 동참하면 금방 재미있고 흥겨운 자리로 변하고 만다. 그의 지방색 짙은 경상도 사투리와 그리고 그 연정에서의 영어 발음은 웃음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그와 가끔 해외여행을 다닌다. 그 곳에서 만나 그의 영어 발음은 진가를 발휘한다. 경상도 사투리가 영어를 만났을 때의 모습은 그의 외국에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가 물건을 살 때면 사는 물건 보다 그의 목소리와 억양이 더 귀를 잡는 것은 경상도 사투리의 주체성이 강력하게 밴 그의 영어 발음과 억양 때문이다. 우리는 거의 죽을 듯이 웃어댄다. 그때도 그는 즐기차게 경상도 영어로 물건 값을 묻고 깎는다. 그 모습이 참 순수하고 명랑해 보인다.

대개의 사람들은 영어를 못하면 부끄러워하고, 또 잘 하는 사람들은 티를 내는 법인데 그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 자기 식으로 말하고 또 자기 식으로 흥정하는 모습은 그의 삶이 얼마나 명랑하고 구김 없고 순수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우리가 웃으면 고개를 돌려 함께 웃으며 물건 값을 흥정하던 그 모습은 오래도록

재치있는 입담과 하심으로 사랑·나눔 실천하는 스님

절 집의 야사에 한 소식을 이루고 있다.

두 스님이 만나 서로 입을 열면 용호상박의 쌍벽을 이룬다. 가히 입담 고수들의 대결이라 할 만큼 흥미진진 하다. 서로 지지 않으려고 논쟁을 펼치다가 다시 일보 물러서 양보하는 척 하다 기신의 제압을 시도하는 그 모습은 무림의 한 장면처럼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대개 고수들의 싸움이 그러하듯이 그들의 승부는 언제나 후일의 일정을 기억하며 호탕하게 끝나고는 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서봉 스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그가 언제나 하심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언제나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자신이 하고자 한다. 함께 자고 일어나면 먼저 이불을 깨는 것도 그리고 방을 깨끗이 치우고 청소 하는 것도 서봉 스님이다.

전혀 싫은 기색 없이 방을 뛰고 청소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마다 나는 정말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심성의 소유자인가를 다시금 느끼고는 한다.

한번은 내가 재웠을 때다. 손수 마음에 내려가 약과 따는 기구를 사와 내 열 손가락을 다 따주었다. 그것도 그냥 따 주는 것이 아니라 등을 두드리고 팔을 주무르고 난 후에 따 주며 나를 감동시켰다. 사랑이 가득한 그의 따주기 덕으로 나는 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를 만나면 겨울 속을 비추는 따뜻한 햇살이 떠오른다. 그것은 그가 사랑과 나눔의 사람으로 누구에게나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 일 것이다.

■ 월간 <해인> 편집위원

7일 명상으로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로드프라나 명상이란?

프라나(감로, 생기) 호흡법과 로드프라나 36가지의 각종 명상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상승 시키는 기법.

◆로드프라나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 진다

잡자던 몸이 깨어나 몸속에 황금빛 광체가 생기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원을 이루고 개인의식이 무너져 우주의식으로 확장되어 집중력, 이해력이 증대되어 지혜의 눈이 생긴다.

▶ **승이 승이 내리는 눈이** 탄곳으로 안떨어지듯 한번도 자신이 우주 아닌 적이 없었는데 그것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틈새가 생겼기 때문이다.

일체를 버려서 무에 들었거던 다시 일체를 끌어안아 자연이 되라. 나 없는 자리를 찾으면 길이 열리고, 나 있는 자리를 찾으면 천문을 열며,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자리를 찾으면 표정봉에 오른다.

▶ **지금까지 길을 찾지 못한 것은** 개체의식, 고정관념, 자기의 틀을 벗어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기육맥공, 선밀공, 프라나호흡, 프라나동작, 36장 관조, 관음법을 통하여 우주의식으로 확장 시키면 스스로 알지 못했던 길을 찾게된다.

◆길타기 3단계

- ▶ 1단계 : 능력확대 (의식확장, 시, 노래, 춤, 연주, 그림 등)
- ▶ 2단계 : 지혜의 눈 (달변, 예시, 무시, 자유 능력)
- ▶ 3단계 : 전이완성 (본래의 자리에 들)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 과정)

다른 차원의 세계 (우주세계)로 못가는 것은 의식과 생각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식 집중을 통해 영혼체 정신체 인 본신을 만들어서 유체이탈을 통하여 천문 제6세계까지 영체와 우주세계를 연결한다.

◆전문열기

- 제 1세계 (우주세계, 합일신계) → 제 6세계 (우주세계, 자제신계)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과정)

◆명상지도자 양성과정 (1년)

- 자격 : 24세 ~ 34세까지
- 학력 : 고졸이상
- 수련과정 : 로드프라나 36장, 프라나호흡, 난소호흡, 원불공, 관조, 관음, 관상법수련, 선밀공, 오기육맥공

로드프라나 명상센터 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곡1동 729-4

☎ 053)471-0433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혈준비에 지친 수행자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을 최가적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본초에는 上藥 120가지로 中藥 120가지로 下藥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 중독, 나병, 알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루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 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용감하옵는 스님, 오늘도 養生 求道와 佛功으로 修行하시는 스님, 기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몸에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옵고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경험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에게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勿論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산삼(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외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국정품(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